

# 朝鮮, THE MORNING CALM

33호

1893년 3월

##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33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3년 3월
- 페이지 수 : 20 (표지 포함)

## □ 목차

Cover	(i)
The Mission	ii
Hospital Naval Fund	ii, iii
(Offerings 봉헌 내역) Children's Fund, Hospital Naval Fund, Special Fund	iv
The Bishop's Letters (주교통신, 1892년 11월 서울에서 보낸 서신)	(33)
Extracts from Home Letter of Rev. Mark Napier Trollope (트롤로프 사제 편지 중에서)	36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조선을 위한 기도와 사목 협회)	37
The Spirit of Missions	38
(Offerings 봉헌 내역) St. Peter's (Kilburn) Association for Foreign Missions	44
Education Fund	v
March (3월의 기도표)	v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vi, vii
Notices	viii

## □ 해제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칼름〉 33호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의 편지는 조선선교회의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 성 베드로 수도회에서 파송한 수녀 선교단 일행을 맞이하였고, 독sey 사제(The Rev. F. W. Doxat) 부부도 맞이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 소속의 영어 사용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와 회중을 사목하는 책임을 독sey 사제에게 맡겼다. 책임 맡기는 예식은 기도서대로 회중과 함께 거행하였다. 편집자가 트롤로프 사제의 편지에서 몇 구절 발췌해서 실었는데, 서울 날씨에 관한 내용이다. 영하의 날씨가 매우 춥기는 하나 청량하다고 나쁘지 않다고 자신의 느낌을 적고 있다.

## The Bishop's Letter - 주교통신

1892년 11월, 서울에서

그리운 벗들께,

이번 달은 바쁘고 일도 많은 달입니다. 편지 한 통에 다 기록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잡지 편집인이 반 잘라 신고 나머지 반은 다음 호에 내보낼 듯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제물포에서 낙동으로 왔습니다. 다음날(11월 1일)이 제가 주교로 서품된 지 4주년 되는 날, 아침에 트롤로프 사제, 워너 사제, 데이비스 부제, 스마트 씨, 호지 씨와 함께 감사성찬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성 베드로회 수녀들을 신고 오는 증기선이 그 주에 제물포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랜디스 선생이 수녀들을 최선을 다해 편안히 친절히 인도하기 위해 11월 4일 이른 아침 마포행 증기 기동선에 동행했습니다. 마포나루는 한강변에 있으며 서울 도성에서 4마일(6.4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중 몇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수녀들의 집'으로 가서 철사들도 정리하고 상자의 못과 나사들도 제거하는 등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일행이 배에서 내려 강변에서 이곳 숙소까지 걸어서 도착했는데, 마치 이제 막 여행길에 오르려는 사람들처럼 보였달까요. 뽕 뚫린 배 안에서 춥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쿡 선생과 히스코트 선생의 친절 덕분에 수녀들은 곧바로 정말 필요한 아침 식사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후 성 베드로 수도회를 잘 모르는 우리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그들은 활기차게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힐리어 영사 부인이 몇 달 전에 영국에서 교분을 쌓은 터라, 수녀들의 서울 도착을 환영할 겸 짐 푸는 일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사님 또한 도움 될 게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둘러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녀들은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수도회 본회는 이 수녀들에게 집을 운영해갈 계획을 주어 보냈고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들은 한 번 더 쿡 선생의 점심 대접을 받아들여긴 했지만 곧이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을 들었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짐 상자의 내용물을 다 꺼냈고 방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편리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 트롤로프 사제가 수고를 하였는데, 수녀들이 그 수고에 깊이 감사하였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제 성 베드로 수도회 후원회에서 마련해준 멋진 선물들로 장식되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

다시 수녀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1월이 바쁘고 분주해서 조선어 선생님과 정규수업을 다음 달로 미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녀들이 매우 준비된 분들이어서 제가 며칠 동안은 자모 모양과 소리내기 기본과 문장 약간을 교육하였습니다.

수녀들이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잡아 감에 따라 저는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 제물포 성 미카엘 성당으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에 독재이 사제 부부를 태운 증기선이 도착하리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딱 시간 맞추어 도착했고 여행객은 심신이 다 건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우리는 마포를 향하여 강을 따라 출발하였고, 이번

에도 랜디스 선생이 일행과 함께하는 귀한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 서둘러 통행금지 전에 서울 도성 안에 도착하였습니다. 독세이 부인은 수녀들의 집의 손님방에 편안하게 자리잡았고, 독세이 사제는 힐리어 영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동의 따뜻한 도서실에서 오늘 여기 오는 길에서 겪은 모험담을 들어줄 청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독세이 부부는 새로운 환경을 둘러보고 거처를 살피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림 첫 주일에, 그동안 새로운 교회를 봉헌하기로 결심한 채 2년이 경과한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피크 씨와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영국 교회 회중을 위한 예배를 쿡 선생 집의 작은 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편지에서도 저는 우리가 이 항구적인 교회를 갖게 된 것은 다 트롤로프 사제의 능력과 인내심과 근면함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조선 건물이므로 밖으로는 교회를 암시하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그가 사진을 찍어 <모닝캄>에 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주일 아침 8시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오소서, 창조주여(Veni Creator)'를 불렀고, 곧바로 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시작 시편을 바치고, 제대를 축성하였습니다(북중국 스코트 주교님 디자인이며, 제물포 성 미카엘 성당 것의 복제품입니다). 교회 봉헌식(미국 기도서에 나오는 예식문으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성찬례를 봉행했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칸막이, 휘장, 방석, 제대보, 제대 위 예식서, 성경 앞에서, 이렇듯 교회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S.P.G.의 지원금을 통해 우리가 조선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영국 교회(Church of England)의 영어 사용 회중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포츠머스에 있는 제 사랑하는 고아 학생들이 우리가 이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눈치챘다면, 평소보다 더 어여쁜 목소리와 더 충만한 마음으로 주일 찬송('우리 모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을 불렀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만들어준 제의, 여러분도 해군 전시회에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그것을 입었고, 성찬례 후에 벗으며 그들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기를!" 온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신 소중한 손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날 '노래로 드리는 저녁기도' 전에 저는 모두 앞에서 독세이 사제에게 이 교회와 회중을 맡겼습니다. 미국 기도서에 있는 예식문을 사용해서 그에게 소임을 맡기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독세이 사제는 설교를 베풀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사목을 시작하였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에벤에셀(사무엘상 7:12)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느님 찬미가(Te Deum)'를 불렀습니다.

11월 30일(성 안드레아 축일),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회와 또 모든 해외 선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여기서는 수녀들의 집이 이들의 사목을 위해 엄숙하게 성별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예배당을 지나서 우리는 모든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쓸 사람과 장차 할 일들 위에 하느님의 복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갔는데, 성 안드레아가 성 베드로의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멋진 일(축성식)을 하는 데에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집 전체가 안정되고 집다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식 후에 큰 공동체 방에서 우리를 '내 집에 있듯이' 편하게 대해준

수녀들의 친절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 고아 중 한 아이가 보낸 편지에서 처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하고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고 새해 더욱 발전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벗,

✧ C. J. 코프.

#### Extracts from Home Letter of Rev. Mark Napier Trollope - 트롤로프 사제 편지 중에서

12월 13일. - 이곳은 이제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리잔의 온도가 5°F(섭씨 영하 15°)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퐁퐁 얼어붙는 영하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눈이 좀 내렸지만 대체로 구름 없이 청명하며 햇볕도 좋은 날씨니 심하게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워너 사제는 현재 마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오늘 한강이 바로 얼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거기 갔을 때 강은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새 교회 봉헌식의 예식문을 보내겠습니다(우리 출판사에서 인쇄했습니다). 정말 좋은 예식이었고 교회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 안드레아 축일(11월 30일)에는 수녀원의 축성식이 있었습니다. 독sey 사제 부부가 우리와 합류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물포에서 겨울을 보내야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 주교님이 그리로 가셨고 저는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한문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서 꽤 힘듭니다.

“12월 22일. - 지난 한 달 동안 추위가 매우 심했습니다. 밤에는 25~30°F(섭씨 영하2~4°)여서 살얼음이 얼고, 한낮에 햇빛 아래서 약간만 녹습니다. 춥지만 짱하게 청명한 날씨, 그걸 즐기는 재미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사관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디너를 가질 예정이며,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교님을 만나러 바로 제물포로 갑니다. 주교님과 다양한 현안을 놓고 상의하려고 합니다.

#### 아침생각

대한성공회 역사에는 ‘성 베드로’(또는 ‘성 피득’)라는 말이 들어간 시설이나 기관이 꽤 있다. 다 연원을 살피면 성 베드로 수도회와 관련이 있다. 우리 선교 초기부터 런던 킬번의 성 베드로 수도회 해외선교회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선교자금과 성물 등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신앙의 반석’이라는 뜻으로 주신 이름 ‘베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으로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돌보는 수호성인이시다. (✧)